

대한 양계협회

소식

전국순회 닭질병대책세미나 개최 -3월23·26일 부산, 광주에서-



본회는 최근 양계장에서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3월23일과 26일 부산과 광주에서 닭질병대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3일 동래 온천예식장에서 개최된 부산세미나에서는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 김기석 박사의 “국내 닭질병 발생동향과 방제대책, 뉴캐슬병을 비롯한 호흡기성 질병의 발생과 방제”, 두호통상 허환영 사장의 “배합사료산업 발전과정과 90년도 사료가격 전망”

고려산업 한수신 이사의 “영남지역 닭질병발생 현황”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26일 광주 카톨릭센터에서 개최된 호남지역 세미나에서는 가축위생연구소 김기석 박사의 질병강의에 이어 본회 강제명 과장의 “양계업 경기전망”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김기석 박사는 “백신 사용량을 보면 육계에는 프로그램에 맞춘 최소한의 백신접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국내 백신접종의 부재상황과 최근 뉴캐슬병의 발생은 관련성이 높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뉴캐슬병 백신접종 없는 양계사양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뉴캐슬병 유행기에는 평상시 접종 프로그램으로는 완전한 예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외국에서부터 도입되고 있는 종계나 축산물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최근까지 없었던 여러가지 질병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래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바이엘화학,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녹십자수의약품, 동원신약, 대성미생물연구소, 양지화학, 한일농원에서 협찬했다.

축산폐수정화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질의 -사육시설면적 1,000㎡이상 경우 계분건조 시설만-

본회는 폐기물관리법의 운영과정에서 일선기관과 양축가 사이에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계분건조시설과 냄새에 대한 제재규정에 대해 환경처에 질의하여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회신 받았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양계업을 경영할 때 사육시설 면적이 1,000㎡ 이상은 계분건조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되어있으므로 계분건조시설만 설치 운영하면 현행법상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현행법상에는 양계장의 경우 냄새에 대한 제재규정(악취허용기준)이

있는가에 대한 여부, 만약 양계업의 경우 냄새에 관한 제재규정이 있다면 법적근거와 냄새측정방법에 대해 지난 3월13일 환경처에 질의를 하여, 지난 20일 환경처의 회신을 다음과 같이 받았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닭의 사육시설규모(면적)가 1,000㎡이상(특별청소 지역에서는 면적 500㎡ 이상)되는 경우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대상 축산시설에 해당되며, 닭 사육시설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환경청고시 제88-21호의 규정에 의한 건조시설을 갖추면 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관리기준에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항목만 배출기준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악취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기준은 없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에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 악취관리에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이다.

90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예정 -4월 11일, 본회 회의실-



본회 90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가 오는 4월11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고문추대, 자문위원 위촉, 각 분과위원 및 전문위촉 동의건과 지부회원 양성화 방안, 부화협회 설립 협조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분과위원 선출-

3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구) 및 전국계우회연합회 월례회가 지난 1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닭의 산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종계의 환우 등 위생적인 문제가 이러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산란종계의 환우를 금지시키고, 30주령 이전의 종계와 60주령 이후의 종계에서 생산된 종란은 부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계값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노계를 일찍 처분하는 것이 개인이나 업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인천, 일산, 금촌, 마석 등지에서 400만수에 가까운 규모가 공장화되어 수도권지역은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지방계란의 유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부산지역은 상인들에게 어음으로는 결제받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장단에 위임되어 선출된 채란분과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준구(광주), 강현도(동두천), 송복근(동두천), 정광면(이천), 김상길(광주), 박동원(광주), 김종수(천호), 최정규(천호), 전상열(평택), 이인수(홍성), 이신규(청량리), 김충리(청량리), 임 진관(수원), 최승수(김포), 박승봉(안성), 유홍복(서부), 백희현(화도), 이석훈(곤지암), 김경렬(천안), 광인기(천안) 씨와 경북지부, 부산·경남지부, 전북지부, 전남지부 채란분과위원장.

제5회 닭고기요리 솜씨대회 작품집 제작 —새로운 닭고기요리 17만부—

지난 89년 10월에 실시된 제5회 전국 닭고기요리 솜씨대회에서 입상된 작품중 조리법이 간편하고 새로운 요리로 보급성이 뛰어난 9종의 새로운 닭고기요리를 선별해 팜프렛을 제작했다.

국판 사이즈(15.5cm×21.5cm), 칼라로된 본 팜프렛은 두산식품(주) KFC.와 (주)맥시칸치킨의 도움으로 17,000부가 제작되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배부되고 있다.

본 팜프렛을 닭고기 소비 홍보에 활용코자 하시는 분이나 업체에게는 무료로 배부하니 본회 홍보실(전화 588-7651)로 문의 바랍니다.

소비홍보 사업 실적 팜프렛 제작 —1986년부터 4년간 실적—

본회가 지난 86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실시한 닭고기·계란 소비 촉진 홍보사업에 대해 4년간의 주요 실적을 팜프렛으로 제작했다.

8쪽으로된 본 팜프렛은 2,000매가 제작되어 본회 회원 및 유관업체·단체 등에 배부 중에 있다.

그동안 본회에서 추진한 양계산물 소비홍보 사업을 사업별로 보기 쉽게 쓰여져 소비홍보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미처 본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업체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는 메시지도 곁들여 있다.

육계산업발전대책 세미나 개최 —당진, 전주, 서울—

본회는 지난 3월21일 당진, 22일 전주, 27일 서울에서 육계산업발전대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육계 계열생산체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안정적

개최하고 미국사료곡물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미국육계협회장 Tom Reese 씨가 “미국 육계산업의 발전요인 및 현황과 전망”, 미국사료곡물협회 박영인씨가 “한국 육계산업의 나아갈 길”이란 강연에 이어 당진과 전주에서는 한국바이엘화학 양계담당 수의사의 “올바른 약품사용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임덕성 사무국장 정년퇴임 —본회에 15년간 근무한 일본통—

본회 임덕성 사무국장이 지난 3월5일부로 정년퇴임 하였다. 임국장은 지난 76년2월부터 15년 동안 본회에 근무하며 총무부장, 지도조사부장,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며 양계산업 발전과 양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었다.

특히 일본의 양계관련인들과의 깊은 유대관계로 한국과 일본의 양계산업 기술 및 정보교환에 교량역할을 해온 일본통으로 선진기술, 정보를 보급하는데 주력해왔다.

임국장은 퇴임인사에 “복무기간 동안 대과없이 소임을 마치게 된 것은 오직 양계관련 모든이들의 따뜻한 정성어린 지도와 사랑의 결과이기에 이에 감사드리며,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 양계업계에 있을 것”이라 했다. 한편, 임국장은 앞으로도 양계업과 관련된 일로 양계산업 발전에 노력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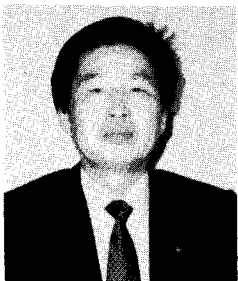
가평분회, 제1회 가평육계인대회 개최
—3월28일, 설악 복지회관에서—



지난 3월28일 오전11시 가평군 설악면 복지회관에서 제1회 가평군 육계인대회가 본회 가평육계분회(분회장 민해근)주최로 강석부 부회장을 비롯한 가평축협조합장 등 내외 관련인사,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는 현재 분회에 가입하지 않은 가평지역 육계인들에게 가평육계분회에 대한 소개와 불합리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질병대책, 병아리 구입방안 등을 모색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전북지부장 홍용완, 경북지부장 박해탁씨



△홍용완 지부장



△박해탁 지부장

본회 전북지부와 경북지부는 '90년 정기총회에서

신임지부장에 홍용완씨와 박해탁씨를 선출했다.

신임 홍용완 전북지부장은 지난 70년부터 양계업계에 투신하여 소정농장(채란계)을 경영하고 있으며, 전주축산업협동조합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한편 박해탁 경북지부장은 지난 66년부터 채란계농장인 홍생농장을 경영하면서 경북지부 회원의 단합과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해왔었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3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강석부)가 지난 27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큰닭이 밀리고 있어 당분간 육계시세는 약보합세를 보이겠지만, 4월에는 시세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병아리가격은 소형종이 380~430원, 대형종이 420~450원 선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으나 이것은 부화장 입금가격일뿐 실제로는 이보다 30~40원 정도 더 비싼 가격에 웃겨려 되어 농장에 입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종계분과위원회 개최

—분과위원장에 이재식씨 선출—

3월 종계분과위원회가 지난 14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집중 토의되었다. 종계분과위원회를 채란과 육계종계로 구분하여 개최하기로 하고 분과위원 중 채란과 육계에 둘다 관련되는 사람은 양쪽 모두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날 선임된 분과위원은 다음과 같다.

- 분과위원장 : 이재식(육계종계분과 담당, 계유부회장)
- 부분과위원장 : 배성황(채란종계분과 담당, 삼화농원)
- 분과위원

● 채란

신흥종(고창양계), 배성황(삼화농원), 송인환(성진부화장), 이계욱(천호부화장), 유남열(한일농원), 박수남(복지농원), 박준영(한협축산), 배선채(중원농장), 이건남(신기농장), 김인영(양지부화장), 손종현(신진농원), 김영환(광천농장), 김진영(봉산농장), 주양수(마산형제부화장)

● 육계

이재식(계유부화장), 이상운(신기농장), 이순오(죽전부화장), 이종운(기룡농원), 정석택(명지부화장), 천일만(서림부화장), 이건일(봉림부화장), 남광풍(풍전부화장), 김교석(우화부화장), 안승식(홍일부화장), 한재권(강남부화장), 송두진(지산부화장), 임병목(신세기부화장), 최규익(태을부화장), 최태환(대한부화장), 류종래(유성부화장), 배성황, 박준영, 이계욱, 유남열(이상 4명은 채란과 중복됨)

양계관련 홍보물 전시
—본회 사무실 입구에 설치—

본회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정보를 교환코

자 축산인의 왕래가 잦은 본 협회 입구에 양계 및 축산관련 업체의 광고용 홍보 전시대를 설치해 전시 중에 있다.

본 전시 코너에 홍보물을 전시 할 경우 전국의 양계인 및 축산인, 관련 업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널리 홍보 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해 설치 하고있으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활용 바란다.

1. 장소 : 본회 입구(축산회관 5층)
2. 전시종류 : 축산에 관련된 약품·기계·기구 등의 샘플 및 팸플렛 기타
3. 관리 : 홍보물은 자사에서 공급하며 본회에서 관리
4. 관리비용 : 전시대 1면(넓이 105cm×높이 100cm×폭37cm)6개월에 20만원.
5. 대형전시물 : 전시대 내부에 설치가 불가능한 대형 전시물은 별도 협의에 의해 전시대 외부 공간에 설치 가능함.
6.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홍보실로 문의 바람. 현재 6개 업체에서 전시 중에 있음.

● 협회 가입을 축하합니다 ●

- 권순경(권농원) 충북 진천군 덕산면 화상리 69
- 이병천(지족농장) 대전직할시 유성구 지족동 117-1
- 안효택(수원농장) 경기도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733